

# 태용 “NCT 127은 집 같은 존재...멤버들과 끈끈함 있죠”

### K팝 신에 새로운 시스템 제시 그룹 NCT

### “멤버들에게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애정’

K팝이 전 세계 음악팬들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누가 뭐래도 아이돌 그룹의 영향이 컸다. 그간 국내에서 탄생한 여러 보이 및 걸그룹들은 다양한 매력과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앞세워 글로벌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왔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멤버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특성 및 강점을 제대로 발휘함과 동시에 팀워크까지 갖추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다. 그렇기에, 팀 내 리더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두루 갖춘 리더는 팀을 한층 더 끈끈하게 묶고, 멤버 개개인의 장점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리더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뉴스1은 아이돌 그룹 리더들의 가뭄 및 고충 등에 대해 알아보기자 ‘나는 리더다’ 시리즈를 준비했다.

그 열네 번째 주인공은 보이그룹 NCT 127(엔시티 127)의 리더 태용(25·본명 이태용)이다.

그룹 NCT(Neo Culture Technology·엔시티)는 K팝 신에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한 그룹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NCT는 멤버 수의 제한이 없고, 영입이 자유로운 덕분에 다양한 유닛을 론칭했다. NCT 127(엔시티 127)은 NCT에서 파생된 첫 고정팀이다.

서울의 경도도를 의미하는 ‘127’을 유닛명으로 정한 이 팀은,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NCT 127은 독특하고 실험적인 노래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태용은 NCT 127은 이끄는 리더다. 책임감이 강한 그는 NCT 내

여러 유닛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NCT 127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태용은 NCT 시스템 속 유일한 리더이기에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태용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건 멤버들이다. 멤버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이 잘 흘러가도록 돕는다. 이런 시간이 쌓이며 팀워크가 더 끈끈해졌음은 물론이다. 태용은 “멤버들에게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함께 팀을 일군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곡 ‘소방차’를 시작으로 ‘무한적아’(無限的我; Limitless), ‘체리 밤’(Cherry Bomb), ‘사이먼 세이즈’(Simon Says) 등 실험적인 스타일의 노래를 발표한 NCT 127. 꾸준히 자신들만의 색이 담긴 음악을 선보인 이들은 음악성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대중 역시 사로잡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3월 발표한 정규 2집 ‘엔시티 #127 네오 존’(NCT #127 Neo Zone)을 통해 NCT 127은 처음으로 음반 판매량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으며, 신곡 ‘영웅’(英雄; Kick It)으로는 음악 방송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데뷔 후 음악에 공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자신들만의 색을 보여주지 위해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NCT 127은, K팝 ‘영웅’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태용은 “하나씩 단계를 밟아오며 성장한 만큼, 더 나아가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며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NCT 127의 리더 태용과 ‘펀치’(Punch) 활동이 끝난 직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 태용이다.(웃음)

▶어떻게 NCT 127의 리더가 됐나.

▶리더가 될 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리더가 됐다. 회사에서는 연습생일 때 의욕이 많이 보였다고 말해주더라. 우리 팀에 대해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모습 덕분에 (회사에서) 리더로 적합하다고 생각한게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리더인가.

▶멘트를 실수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리더.(웃음) 책임감이 있는 리더다.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한다.

▶팀의 리더라 느끼는 부담감이 있겠다.

▶예전엔 ‘NCT 127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NCT 내 팀마다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대중 역시 사로잡기 시작했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나.

▶리더라고 해서 큰 부분을 정리하기보다는 소소한 것을 정리하는 게 더 많다. 밥을 어떤 걸 먹을지 정하는 것부터(웃음) 스케줄은 어떻게 정리할지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정한다. 또 나도, 멤버들도 무대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걸 중시해서, 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정리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사와 이야기하는 건 내 몫이다.

▶리더가 꿈은 NCT 127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

▶NCT라는 브랜드 내에 여러 유닛이 있지만, NCT 127은 집 같은 매력에 있다. 덕분에 멤버들과

도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누곤 한다. 서로 아픈 모습도 보고, 고생도 같이 이해하면서 ‘으으으’ 했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더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팀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멤버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웃음) 예전엔 아무래도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각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정도다. 또 팀과 회사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게 리더의 일이 아닐까 한다.

▶리더에게 도움을 주는 멤버가 있다면.

▶멤버들 모두 NCT 127을 좋아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더 성장하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멤버 모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잠자면 도영과 마크가 많은 도움을 준다. 무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멤버들이다. 또 만형인 태일이 형에게도 정말 고맙다. 형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나도 리더로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반대로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나.

▶없다. 하하.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같다. NCT 127은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리더로서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팀을 이끌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멤버들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 태용이다.(웃음)

▶어떻게 NCT 127의 리더가 됐나.

▶리더가 될 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리더가 됐다. 회사에서는 연습생일 때 의욕이 많이 보였다고 말해주더라. 우리 팀에 대해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모습 덕분에 (회사에서) 리더로 적합하다고 생각한게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리더인가.

▶멘트를 실수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리더.(웃음) 책임감이 있는 리더다.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한다.

▶팀의 리더라 느끼는 부담감이 있겠다.

▶예전엔 ‘NCT 127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NCT 내 팀마다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대중 역시 사로잡기 시작했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나.

▶리더라고 해서 큰 부분을 정리하기보다는 소소한 것을 정리하는 게 더 많다. 밥을 어떤 걸 먹을지 정하는 것부터(웃음) 스케줄은 어떻게 정리할지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정한다. 또 나도, 멤버들도 무대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걸 중시해서, 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정리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사와 이야기하는 건 내 몫이다.

▶리더가 꿈은 NCT 127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

▶NCT라는 브랜드 내에 여러 유닛이 있지만, NCT 127은 집 같은 매력에 있다. 덕분에 멤버들과

도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누곤 한다. 서로 아픈 모습도 보고, 고생도 같이 이해하면서 ‘으으으’ 했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더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팀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멤버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웃음) 예전엔 아무래도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각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정도다. 또 팀과 회사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게 리더의 일이 아닐까 한다.

▶리더에게 도움을 주는 멤버가 있다면.

▶멤버들 모두 NCT 127을 좋아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더 성장하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멤버 모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잠자면 도영과 마크가 많은 도움을 준다. 무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멤버들이다. 또 만형인 태일이 형에게도 정말 고맙다. 형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나도 리더로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반대로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나.

▶없다. 하하.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같다. NCT 127은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리더로서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팀을 이끌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멤버들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도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누곤 한다. 서로 아픈 모습도 보고, 고생도 같이 이해하면서 ‘으으으’ 했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더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팀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멤버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웃음) 예전엔 아무래도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각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정도다. 또 팀과 회사 사이에서 오해가 없도록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게 리더의 일이 아닐까 한다.

▶리더에게 도움을 주는 멤버가 있다면.

▶멤버들 모두 NCT 127을 좋아하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더 성장하고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멤버 모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잠자면 도영과 마크가 많은 도움을 준다. 무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멤버들이다. 또 만형인 태일이 형에게도 정말 고맙다. 형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나도 리더로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반대로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나.

▶없다. 하하.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같다. NCT 127은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리더로서 팀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팀을 이끌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멤버들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어떤 결정을 해도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딱 떨어지는 의견이 필요할 때는 톨렛을 애용한다. 재현이가 아이디어를 내줬다.(웃음)

▶멤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제나 그렇듯이, 멤버들과 오래가고 싶다. NCT가 처음 공개됐을 땐, 우리도 낯선 시스템이 많이 어려웠다. 대중도 이 시스템이 난해했겠지만, 사실 팀에 속한 멤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다. 지난

4년 동안 그런 점을 다 이겨냈으니 이제 나아갈 일만 남았다. 함께 더 의욕을 불태워서 활동하자고 말하고 싶다.

▶NCT 127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멤버들 한 명 한 명 솔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실력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최고의 팀이 되는 게 아닐까. 더불어 SM 선배님들을 본받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것이 꿈이다.

## 여자친구, 신곡 ‘애플’ 뮤비 티저 공개...‘매혹적’

### 마녀 퍼포먼스’ 첫 등장

그룹 여자친구가 새 앨범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티저를 추가 공개했다.

여자친구는 12일 유튜브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앨범 ‘화:송 오브 더 사이렌스’(回:Song of the Sirens)의 타이틀곡 ‘애플’(Apple) 뮤직비디오 두 번째 티저 영상을 선보였다.

공개된 티저는 유혹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은하를 시작으로 여섯 멤버의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모습을 비추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타이틀곡 ‘애플’의 음원을 비롯해 가사와 퍼포먼스 일부가 함께 공개돼 노래와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뒤를 돌아보지 마, 불안한 생각은 마’·‘마녀들의 밤이 와’라는 가사에 따라 섬세한 표정 연기와 당당한 느낌을 주는 ‘마녀 퍼포먼스’가 처음 등장해 이제껏 보



인적 없는 과격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여자친구는 유혹 앞에 흔들리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새 앨범 ‘화:송 오브 더 사이렌스’를 통해 옳다고 믿었던 길을 선택했지만, 다른 길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풀어낼 예정이다.

앞서 선보인 콘셉트 포토와 타이틀곡 뮤직 비디오 티저 등에서 음악은 물론 비주얼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던 컴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한편 여자친구는 오늘 오후 6시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미니앨범 ‘화:송 오브 더 사이렌스’를 발표한다.

## 틴탑, 데뷔 10주년에 맞이한 ‘역주행’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틴탑에 역주행 열풍이 불고 있다.

틴탑은 지난 10일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투 유 2020’(To You 2020)을 발표한 가운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10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한 틴탑은 ‘투

유 2020’ 스페셜 무대를 통해 10년이라는 시간에도 변함없는 동안 외모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스페셜 브이라이브 ‘같이 먹어요’를 통해 특별한 10주년 파티를 진행. ‘장난 아니’ ‘미치겠어’ ‘니가

아니라서’ ‘항수 뿌리지마’ 등 명곡을 대방출했다.

이처럼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활동을 선보인 틴탑이 관심이 높아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해 지난 10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10대, 20대 실시간 검색어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 티아라 출신 소연, 생각을보여주는엔터와 전속계약

### 홍록기·한혜진·김호중 등 한솔밥

결그룹 티아라 출신 소연이 새 동지를 찾았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소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연은 지난 2009년 그룹 티아라로 데뷔, 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달콤한 유혹’ 등을 비롯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쇼킹왕’에도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한 바 있다.

특히 소연은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면모로 대중을 만나왔기에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진다.

한편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에는 홍록기 한영 봉준근 김원호 한혜진 최승윤 김나윤 장진희 그리고 ‘미스터트롯’ 정미애 김소유, ‘미스터트롯’ 김호중 영기 안성훈 후니용이 등이 소속되어 있다.

## 베리베리 ‘썬더’ 뮤비 천만 뷰 돌파

### 초동 자체 기록 경신·해외 6개 국가서 톱 10 진입



그룹 베리베리의 신곡 ‘썬더’(Thunder)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돌파했다. 베리베리가 지난 1일 발매한 네

번째 미니앨범 ‘페이스 유’(FACE YOU)의 타이틀곡 ‘썬더’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오후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넘어섰다. 이는 베리베리 데뷔 이래 최단 시간 내에 뮤직비디오 1000만 뷰를 돌파, 거침없는 상승세로 기록을 경신했다.

신곡 ‘썬더’ 뮤직비디오는 마치 80년대 모험물 영화를 떠올리게 하며 사라진 막내 강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작들의 뮤직비디오부터 연결되는 탄탄한 내러티브로 보는 사람들에게 뮤직비디오 해석의 묘미를 주며 재미를 안겼다.

‘썬더’는 밀려오는 불안에 주저할 때 너와 내가 만나 용기 있게 맞서고 우리가 되어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곡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 초동 자체 기록을 경신, 글로벌 차트에서도 해외 6개 국가에서 톱 10에 진입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